

전북, 대한민국 수소경제 본거지로 '도약'

완주-익산-군산-부안 있는 수소모빌리티 밸류체인 형성... 친환경 산업단지로 수소 생태계 국제경쟁력 확보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탄소중립 시대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약 8,331억 원 규모의 사업을 펼쳐왔다. 기반고도화에 1,772억 원, 집적화 단지 조성에 5,504억 원, 수소도시 조성에 890억 원, 기업·R&D 지원에 225억 원을 투입하며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수소용품센터 상정식 제막식.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완주군을 중심으로 지원 인프라도 집중됐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는 수소법에 따른 안전관리와 평가·인증 업무를 맡는다. 사용 후 연료전지 센터와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는 연료전지 재사용·재활용을 뒷받침한다.

부안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군산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 사업까지 포함해 총 6개 지원 인프라가 가동 중이거나 구축 중이다. 생산 역량도 갖췄다.

완주 천연가스 개질 수소공급기지에서 하루 2.4톤,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에서도 하루 1톤 등 총 3.4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도는 기후부가 추진하는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지난 8월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정될 경우 수소 상용모빌리티 분야 전후방 기업 집적과 시설 기반 구축, 산업생태계 확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사업자와 지원시설의 집적화가 촉진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개발·보급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마련되고, 산·학·연 연계 효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 봉동읍 165만㎡ 부지에 5,504억 원을 투입하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순항 중이다. 2023년 3월 국토부로부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뒤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섰고,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예타 통과 시 2026년 하반기 산단 지정, 2027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

국가산단이 들어오면 30개 이상의 수소전문기업을 유치하고, RE100을 실현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할 국제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

완주-익산-김제-군산-부안-전주를 잇는 수소 상용차, 특장차, 건설기계, 농기계, 연료전지, 수소저장용기 등 전방위적 모빌리티 밸류체인도 형성돼 있어 사업 추진 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예산·보안 두 마리 토끼 잡았다

도-전북대, 자체 개발 '생성형 AI 행정시스템' 정식 운영 타 지자체 대비 구축비 1/40 수준·연간 구축료 25억 절감 효과

전북특별자치도가 22일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시스템은 예산 절감과 보안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도는 이번 시스템 구축에 GPU 서버 등을 포함해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지난 3월 전북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의 개발 지원을 받아, 별도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없이 자체 기술력으로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는 유사한 기능의 AI 시스템을 도입한 서울과 경기, 경북 등 타 광역지자체가 최소 16억 원에서 최대 131억 원을 투입한 것과 비교하면 구축비가 최대 1/40 수준에 불과하다.

도는 전 직원인 상용 생성형 AI 서비스(챗GPT 토크 요금제)를 구축할 경우 발생하는 연간 약 25억 7,0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연간 유지비도 3,000만 원 수준으로 낮춰 매년 25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만호 기자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익숙한 챗GPT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적용했다. 웹 검색 및 질문 응답 기능 외에 비롯해 한글(HWP) 문서 자동 작성, 문서 텍스트 변환(OCR), 음성 변환, 이미지 생성 등 행정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답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고성능 언어모델과 함께 챗GPT, 제미니(Gemini), 클로드(Claude) 등 다양한 상용 AI 모델을 연동해 결과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안 측면에서는 행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서버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라이빗(Private) 방식을 적용했다. 기존 보안 인프라를 활용해 내·외부망 분리,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다중 보안 체계를 구축했으며, 11월 5일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통과해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

도는 23일부터 직원 대상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1월에는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Android)을 출시할 계획이다. 범정부 AI 및 공공데이터 포털과의 API 연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 공원에서 도내 어린이집 원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보육현장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보육현장 성과공유회' 성료

도내 보육인 등 400여명 참석, 보육 현장 성과 공유·협력 장 마련 무상보육·SOS 돌봄센터·발달장애 프로젝트 등 정책 성과 인정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 공원에서 도내 어린이집 원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보육현장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보육, 오늘을 기록하고 내일을 잇다'를 주제로, 보육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육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전북도어린이집연합회가 최근 3년간 추진한 보육현장 활동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했으며, 전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5년 주요 사업 성과를 소개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부모 지원 사업 등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공유되었으며, 유공자 표창과 문화공연을 통해 보육인들에게 격려와 휴식의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포함해 총 4건의 정부포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다 기록을 달성했다.

신은옥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국민훈장을, 천중은 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장은 대통령 표창을, 김선우 전주시청 아동보육팀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도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15명이 교육부 장관표창을 받아 전북의 보육정책 성과가 현장에서 폭넓게 인정받았

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초로 '전북형 무상보육'을 도입해 올해 1만1천여 명의 영유아에게 175억 원을 지원, 3~5세 유아기 필요 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SOS 돌봄센터'를 통해 야간·주말·긴급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 발달장애 프로젝트'를 통해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등 선도적 정책을 추진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5,700여 명의 보육교직원에게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도·안전 점검, 석면 제거 지원,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했다. /이만호 기자

중소기업 절반 "수출 감소 우려"... 최대 애로는 '중국 저가공세'

화장품·의료바이오 업종은 수출 증가 기대 높아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2026년 수출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중국의 저가공세 심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1,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6년 수출이 2025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68.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31.4%)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수출 감소를 예상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대외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컸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의 49.3%는 가장 큰 수출 애로사항으로 '중국의 저가공세 심화'를 꼽았다. 이어 환율 변동성 확대(44.6%), 원부자재 가격

급등(37.0%), 미국·유럽연합(EU) 관세정책의 불확실성(35.0%) 등이 주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출 실적이 감소할 경우의 대응 방안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28.2%), 품질 개선 및 신상품 출시(23.0%), 인력·원가 절감 등 생산비용 축소(21.8%) 등이 꼽혔다.

업종별로는 화장품(86.4%)과 의료·바이오(86.1%) 분야 수출기업의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수출 증가를 기대하는 이유로는 '신제품 출시 및 품질 개선 등 제품 경쟁력 강화'가 47.1%로 가장 많았고, 수출시장 다변화(29.8%),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21.6%)가 뒤를 이었다.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대하고 싶은 수출 시장으로는 관세 정책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21.0%)이 가장 높았으며, 유럽(15.2%), 일본(10.6%), 중국

(10.6%)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수출 바우처 사업 지원 확대'가 53.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 밖에도 중국 저가공세 대응 체계 구축(35.8%), 미국·EU 관세 대응을 위한 외교 강화(35.1%),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31.5%), 해외 인증·규제 대응 지원(27.2%)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규제 강화 등 대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는 생산비·물류비·관세 등 총원가를 절감하는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원가 절감 및 중국 저가공세 대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웹툰·글로 풀어나는 농업·농촌 이야기

농민청,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농촌진흥청이 글과 웹툰으로 풀어나는 농업·농촌 이야기를 통해 국민 공감형 콘텐츠 발굴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9일 서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2025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에는 농업인의 삶과 기록, 도시에서 바라본 농업, 치유와 회복의 경험 등을 담은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다.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창의성, 주제 적합성, 전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7점 등 총 1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총 6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농촌진흥청장상)은 작품 '그해 우리는 불타고 잤었지만, 결국 다시 피었다.'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경남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귀농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농촌의 회복력과 공동체 연대를 담담하게 그려낸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은 이야기 부문과 웹툰 부문에서 각각 1점씩 선정됐다. 이야기 부문 최우수작 '참기 한 방울, 엄마 사랑 한 방울'은 40여 년간 함께 농사를 이어온 어머니의 손끝에서 완성된 참기름 한 병에 담긴 부모의 사랑을 따뜻하게 풀어냈다.

올해 처음 신설된 웹툰 부문 최우수작 '치유농장은 언제나 봄'은 은퇴 이후 치유농업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을 담아 공감을 얻었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탄소산업 5개년 종합계획 확정

기업·시장 연계 강화... 전북형 탄소융복합 산업 생태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산업의 성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단계적인 실행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2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산·학·연 탄소산업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2030년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최종보고

와 함께, 올해 발굴한 신규 정책과제에 대한 심의·자문이 이뤄졌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제2차 위원회는 전북 탄소산업에 있어 향후 5년간 실행할 전략을 구체적으로 완성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기술 중심을 넘어 기업과 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형 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분양 31일 만에 완판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첫 분양 대상 조성토지가 공급공고 개시 한달만에 전량 계약되어 완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첫 분양'은 지난달 11월 21일 공급공고를 통해 단독주택용지 67필지(2만242㎡, 추정방식)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8,640㎡, 경쟁입찰)를 대상으로 새만금 수변도시를 시장에 처음 선보인 공급이다.

공고 이후 단 한 달 만에 단독주택용지 최고경쟁률 41:1을 기록하며 전량 완판됐다. 공사는 1, 2차 공급을 통틀어 전북 외 지역 입찰비중이 약 27%인 점을 감안할 때,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기반으로 수도권과 인근 광역도시권 투자수요까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입지 경쟁력과 미래가치를 검증받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의회 "제9대 후반기, 지역발전 위해 달렸다"

의정 결산 기자간담회서

향후 의정활동 계획도 발표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22일 신청사 고창군의회 의정실에서 제9대 후반기 고창군의회 의정활동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6개월간의 의정성과와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조민규 의장은 인사말에서 "제9대 후반기 고창군의회는 2024년 7월 9일 제30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지난주 폐회된 320회 정례회까지 13회기 동안 오로지 고향 발전과 고창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 없이 달렸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민규 의장은 지난 1년 6개월간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하였고, 먼저, 농업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고창군 농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호남 5개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서해안 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인근 시군 의회 간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그리고, 조민규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먼저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사업' 질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어떤 곳에 보내지는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서, 조민규 의장은결의안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 각 기관에 보내지고 송전선로 관련해서 한전 측에서 간담회 개최를 구하는 상황에서 고창군의회는 분명 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민규 의장은 "많은 기자분들이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 결산 기자간담회 자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군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고창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